에버랜드 추가 수사자료 다음달 법원 제출

2006 여름방학 대학생 중

양영권 기자 | 05/04 15:49 | 조회 706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한 삼성그룹 경영권 변칙 승계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현재 항소심 진행중인 허태학 박노빈 전 현직 에버랜드 사장의 재판에 CB 발행 과정에서의 계열사 임원진 등의 공모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검찰이 이르면 다음달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을 소환해 조사한 뒤 홍석현 전 주미대사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 자료에 이 회장 등이 CB 발행과 실권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허씨와 박씨의 공판에서 검찰 측은 "현재 진행중인 수사 자료를 전면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일부는 다음 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3시 열린다.

1심 재판부가 지난해 말 허씨와 박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이후 검찰은 CB 발행이 이뤄질 당시 에버랜드의 주주였던 삼성 계열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공모 관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허씨와 박씨 측 변호인들은 허씨와 박씨가 어떤 사람과 어떤 공모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며 검찰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변호인 측은 CB 실권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당시 에버랜드 주주였던 신세계와 삼성문화재단이 배정된 CB를 인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실조회를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1심 재판부가 CB가 발행된 때가 아닌 1년 후인 1997년12월에 작성된 신용평가서 2개를 바탕으로 에버랜드의 신용도를 양호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부당하다며 역시 이에 대해서도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1996년 말에 작성된 에버랜드에 대한 신용 평가서가 존재하지 않아 부득이 검찰 측이 제출한 1997년 12월에 작성된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의 평가서를 바탕으로 CB 발행 당시 에버랜드 채권의 신용도를 판단, 계열사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CB 인수를 포기했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뒤로

댓글열전 | 클릭머니

· 아파트에 영어마을도 있는데
· 슈퍼개미,돈벌고 주주운동도
· 수다 떨다보니 특허가 주르르
· [동영상]'타임 100' 참석 비
· 수익률보다 중요한 펀드 선택

이슈

이슈 도움말 | -->이수
예) 강남

최신기사

· 美투자펀드,웅진
유보고
· [내일의전략]만기
추세냐 조작이냐
· [바이오]뇌졸중
료 가능성 높여

최신칼럼

· 법인이 주택을 양
사항들
· [광화문]한국병=
후군
· 일 하지 않는 자

오늘의 주요뉴스

· 정문엔 태극기 '펄
는 '만석'
· 슈퍼개미, 투자로
동까지
· "큰 바늘은 어떤
수 있다"
· 재경차관 "원화절
다"(상보)
· 아파트에 영어마
· 李총재 "일단 동결
지"(상보)
· "국내증시 잘나기
하라"
· 지어도 파리 날리
사 멈춘다
· 내달부터 내시경
적용
· 론스타 기부금 1
임승차'
· 콜금리 3개월째
· "환율하락 흡수기
유지"(상보)
· 美 금리 5%, 인상
· 금값 710불-구리
· 한국 국가경쟁력
단추락(상보)